

미륵불의 '56억만 년' 보다 먼 미래를 만나다

드라마 촬영지 1

- '무신' 촬영지 충주 미륵대원지

“아직도 빈틈이 있어! 붓이 되었던 겁이 되었던 자신이 무엇을 들고 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야. 중요한 건 바로 집중이야. ‘이 마음이 어디가 있는가.’ 하는 것 말이야.”
“예, 스님. 정말 스님은 못 당하겠습니까.”

스님들이 도량에서 무예를 겨루고 있다. 2012년 2월부터 9월까지 56부작으로 방영되었던 MBC 드라마 '무신'의 한 장면이다. 드라마는 고려 말 무신정권 때 노비 출신으로 최고 권력자의 자리까지 오른 김준(김주혁 분)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다. 도망친 노비의 아들 김준은 갖난이 때 축령사라는 절에 맡겨져 무상 스님으로 살게 된다. 시대적으로 승군이 성했던 시절이었다. 무예를 익히며 장성한 무상 스님은 무예가 출중했다. 미륵부처님이 내려다보고 있는 절 마당에서 주인공 김준이 도반들과 무예를 겨루는 장면으로 드라마가 시작된다. 현재의 절에서는 보기 힘든 장면이지만 드라마의 시대적 배경이 되는 고려 말의 절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이다. 드라마의 무대가 되는 축령사의 실제 무대는 충북 충주시 소재의 사적 제317호 충주 미륵대원지다.

사라진 가람 석조여래입상, 오층석탑 등 남아

일주문은 없다. 종루도 없다. 큰법당도 없다. 일주문 대신 연분홍의 코스모스가 도량을 시작한다. 충북 충주시 수안보면 미륵리 포함산 기슭에 자리한 충주 미륵대원지이다. 바람에 흔들리는 코스모스 너머로 당간지주의 흔적과 거대한 귀부가 보인다. 산세를 읽으며 경사를 이루는 도량을 걸으면 오층석탑(보물 제95호)과 석등(유형문화재 제19호)이 보인다. 그리고 이곳이 분명한 절이었음을 말해주는 석조여래입상(보물 제96호)이 보인다. 높이 10.6m의 석불이다. 석불은 'c' 자 형태의 석실로 둘러싸여 있는데, 석굴암 형태의 법당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종루가 있던 자리는 어디였을까. 큰법당이 있던 자리는 어디였을까. 분명한 절이었던 자리. 분명했던 절의 모습은 아득한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신라의 마지막 임금 경순왕은 고려 왕건에게 신라의 모든 것을 넘겨준다. 경순왕의 아들 마의태자는 아버지 앞에서 목서리를 쳤지만 어쩔 수 없었다. 사라진 나라의 마지막 태자는 모든 것을 체념하고 금강산으로 떠난다. 태자는 망국의 아픔을 짊어지고 지금의 미륵리와 문경 관음리를 있는 고갯길 '하늘재'를 넘는다. 그리고 그는 신라를 등지고 북쪽을 바라보는 미륵불을 세운다. 전설이다. 절이 언제 어떻게 사라졌는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MBC 드라마 '무신'의 첫회 장면. 주인공 김준이 무예 연습을 하고 뒤로 미륵부처님이 보인다.



충주 미륵대원지에 남아있는 석조여래입상(보물 96호)은 신라의 마지막 임금 경순왕의 아들 마의태자가 세웠다고 전해온다.

가람의 흔적은 남았고, 세월은 흘러갔어도 흔적이 그 시절을 붙들고 있었다.

충주 미륵대원지...고려조가 창건 추정

충주 미륵대원지는 고려 초기에 세워졌다고 보고 있다. 정확한 기록이 전해오지 않는다. 과거에는 '중원 미륵사지'로 불렸고, 그 이전에는 '괴산 미륵사지'로 불렸다. 이곳의 발굴은 1976년 절터에 있는 가옥을 이전하는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석물이 발견되면서 발굴조사가 이루어지게 됐다.

석굴암 형태의 주실에는 미륵불입상이 북쪽을 바라보고 있다. 미륵불입상과 석등, 오층석탑이 일직선상에 놓여 있는 단탑식 가람배치를 이루고 있다. 주실 앞에 전실 있고, 전실 동쪽을 이어 큰 회랑지가 있다. 석굴은 거대한 돌을 이용하여 쌓아올린 뒤 목조건물을 세웠던 것으로 추정된다. 경주 토함산에 있는 석굴암의 동형 지붕과는 다른 방식이나 근본적으로는 석굴암의 석굴을 모방한 것으로 보인다. 남아 있는 석굴에는 본존불로 모셨던 석불입상이 있고, 석굴벽에는 본존불을 장엄하기 위해 조각한 여래좌상, 삼불좌상 등이 있다. 사지에서 수습된 유물 가운데에는 '미륵당(彌勒堂)', '미륵당초(彌勒堂草)', '원주(阮主)' 등의 글자가 새겨진 기와편이 있고, 이곳의 지명이 미륵리로 되어 있는 점으로 미루어 가람의 이름을 '미륵대원(彌勒大院)'으로 추정하고 있는 것이다. 가람은 대몽항쟁기 때 충주산성 등 충주 인근에서 몽고군과 격렬한 전투가 벌어진 점으로 미루어 이 때 화마로 인해 소실된 것으로 보인다. 몽고전란 때 불탄 것을 고려 말 또는 조선 초에 중건하고, 임진왜란 때 불탄 것을

18세기 무렵 중건했으나 1936년 홍수로 폐사되었다고 보고 있다. 드라마 '무신'의 배경도 고려시대 무신정권 시대부터 대몽항쟁이 펼쳐지는 시기를 그리고 있다.

미륵불의 시간

미륵부처님은 석가모니부처님 다음으로 성불하여 중생을 구제할 부처님이다. 현재 보처보살의 몸으로 도솔천의 내원궁에 머물면서 설법하고 계신다. 석가모니부처님이 입멸한 뒤 56억 7천만년이 되는 때에 이 세상에 태어나 성불하고, 용화수 아래에서 3회의 설법으로 모든 중생을 구제할 미래의 부처님이다.

무예를 닦고 있는 무상 스님의 모습 뒤로 미륵부처님이 보인다. 노비의 아들, 그것도 도망친 노비의 아들로 태어난 무상 스님에게 미래란 56억 7천만년 보다 더 멀리 있는, 그야말로 아득하기만 한 것일 수 있다. 미륵부처님의 세월이란 100년도 못 살고 가는 중생의 생각으로는 가능하기 어려운 세월이다. 무상 스님의 미래는 그 가능하기 어려운 세월보다도 더 가능하기 어려운 것일 수도 있는 것이다. 56억 만년 보다도 더 먼 미래를 타고난 노비의 아들 무상 스님. 비록 드라마의 한 장면이지만 그의 모습 뒤로 보이는 미륵부처님의 모습이 왠지 복선으로 다가온다.

56억 만년을 기다리고 있는 부처님 앞에서 우리들이 겪어낸 시간은 참으로 작은 것이다. 그 작은 시간 속에서 우리는 모두가 행복하지 못했다. 다가 올 미륵불의 시간을 그토록 멀게만 생각해야 하는 것은 단지 숫자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모습 때문이 아닐까.

충주 미륵대원지=박재원 기자 wanhollo@hyunbul.com



충주 미륵사 귀부(충북 유형문화재 제269)



미륵리 5층석탑(보물 제95호)

주변보기

▲하늘재 / 수안보면 미륵리
충주 미륵대원지는 '하늘재'가 시작되는 곳이기도 하다. 절터 옆으로 있는 옛원(院)터를 지나면 하늘재로 가는 길이 나온다. 약 2km의 길로 정상은 해발 525m이다. 얼핏 보면 하늘과 맞닿아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지어진 이름이다. 충북 충주시 수안보면 미륵리와 경북 문경시 문경읍 관음리를 잇고 있는 도 경계로서 미륵리에서 30~40분 정도 걸여오르면 곧바로 문경 관음리로 연결된다. 계룡산, 계림령, 대원령으로도 불리는 하늘재는 우리나라 최초로 뚫린 고갯길이다. 신라 제8대 아달라왕이 서기 156년에 복진을 위해 열었다.

▲수안보 온천 / 충주시 수안보면 온천리 295-8
수안보 온천은 우리나라 최초의 자연적으로 용출한 온천수로 지하 250m에서 용출되는 수온 53℃ 산도 8.3의 약 알칼리성 온천 원액으로 리튬을 비롯한 칼슘, 나트륨 등 인체에 이로운 각종 광물질이 함유되어 있고 수질이 부드럽다.

▲월악산국립공원 / 충주시 수안보면 미륵리 / 월악산 국립공원 관리소 (043) 653-3250
월악산은 높이 1,097m로 충북 충주시 수안보면과 제천시 한수면 일대에 위치한 국립공원으로 총면적 284.5km²로서 2개도 4개 시 군 9개 읍면 34개리에 걸쳐 있는 산이며 해발 1,097m의 월악영봉을 비롯하여 150여m의 기암단애가 치솟아 맹호처럼 우뚝 선 준엄한 산세와 웅장함으로 예로부터 영산이라 불리어 왔다. 인근에는 송계계곡을 비롯한 여러 개의 계곡들이 있으며 인근 수안보에서 온천욕을 겸할 수 있고 충주호 유람도 가능하다.

▲충주 탄금대(명승 제42호)
신라 진흥왕 때 악성 우류가 망국의 한을 달래며 가야금을 타면서 제자들에게 노래와 가야금, 춤을 가르쳤다는 곳이며, 임진왜란 때 팔도 순변사 신립장군이 순절한 곳이기도 하다. 야외음악당과 궁도장이 있다.

<숙을 곳>
-한화리조트 수안보 온천 / 수안보면 온천리 043-846-8211
-사조리조트 / 수안보면 온천리 043-846-0750
-수안보상록호텔 / 수안보면 온천리 043-845-3500
-수안보온천랜드 / 수안보면 온천리 043-855-8400

<식당>
-산골식당 / 043-845-8844 가마솥 한방 백숙
-양지말가든 / 043-848-2430 버섯전골, 팽 사브사브
-분기말매소두부 / 043-846-4764 산채정식



**저작권사
상표권자 정 흥 교 (법화 중헌)**

저자는 경주불국사, 대구동화사, 부산범어사 승가대학에서 수학하고 고려고찰고산사, 석불사 등 주지직을 수행하고, 전통불교조계종정을 역임, 지금은 「구단구궁법교주」로서 자비의 방편화문인 「구단구궁법」을 세상에 널리 펼쳐 많은 중생을 요익케 하고 있다.

전국 서울. 의정부

수강생모집

구단구궁법

특허 상표등록번호 : 40-0863341호
서비스등록번호 : 41-0213393호
저작권등록번호 : C-2011-003967호

누구나 5일이면 실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왕초보·저학력 아무상관 없습니다.
써먹지도 못하는 죽은 학문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시대의 필수과목입니다.

신문, 인터넷, 정·부정기 간행물, 도서, TV, 유·무선라디오 광고 및 교재 무단복제, 강의하면 민 형사상 엄중한 처벌을 받습니다.
※ 저작권 :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상표법 : 7년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강의 일정표

- ◇ 제 1일 - 구단구궁의 제법칙
- ◇ 제 2일 - 구단구궁비결 문구해석
- ◇ 제 3일 - 교재 중심(일련의 사태 재해석)
- ◇ 제 4일 - 구단구궁공신의 제법칙
- ◇ 제 5일 - 구단구궁 실천감정

- 손으로 짚어 5분안에 자금회전, 일의성패, 직업, 성격, 적성, 궁합, 택일, 이사방위 등을 주저없이 판단하고 신동법으로 미래를 예측함
- 한문에 관계없이 초보자도 가능함
- 귀신뽑아 조상천도연계
- 교육이수 후 즉시 영업 가능함
- 사찰, 포교당, 철학관, 상담소 운영에 획기적인 방법

구단구궁법대학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2동 498-10 명화빌딩 (의정부역 1번 출구 2분거리) ☎ 전화 010-7415-0803 / (031)928-5030

인터넷 검색창 : 구단구궁법 (우체국 601401-01-001843 예금주: 자비실천불교연합회)